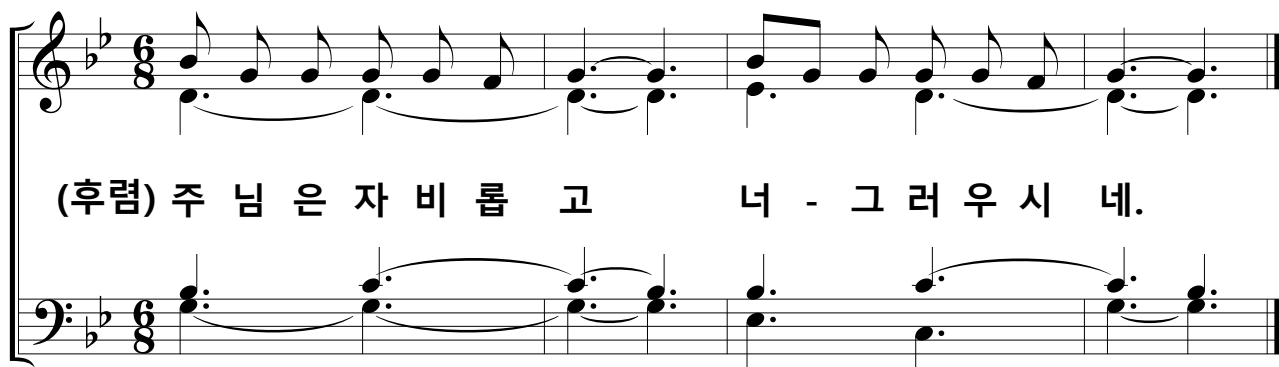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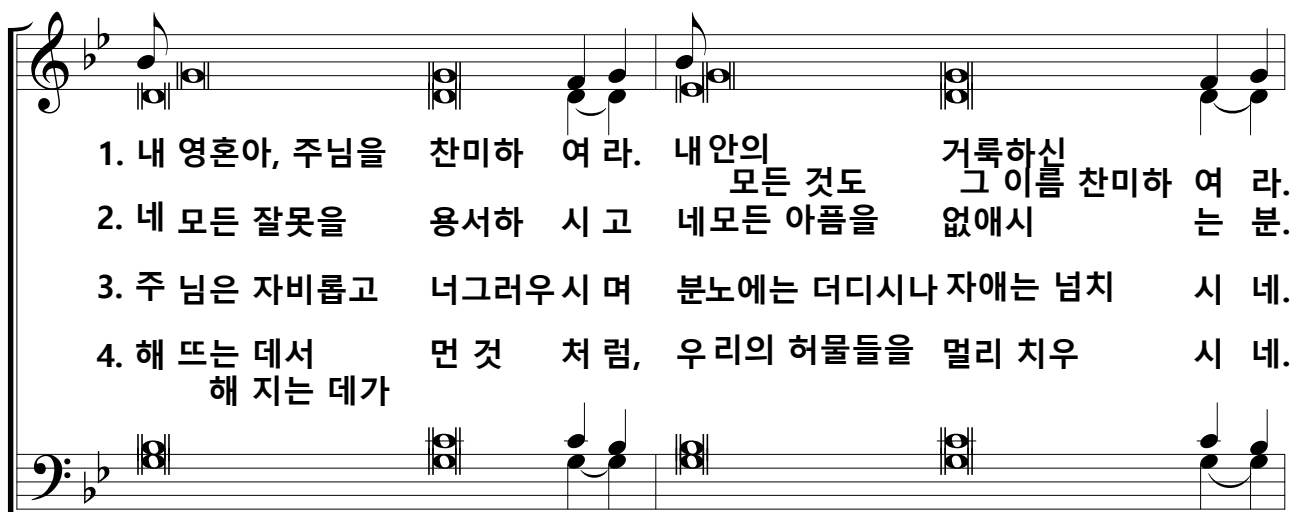


## 연중 제 7 주일 화답송 [다해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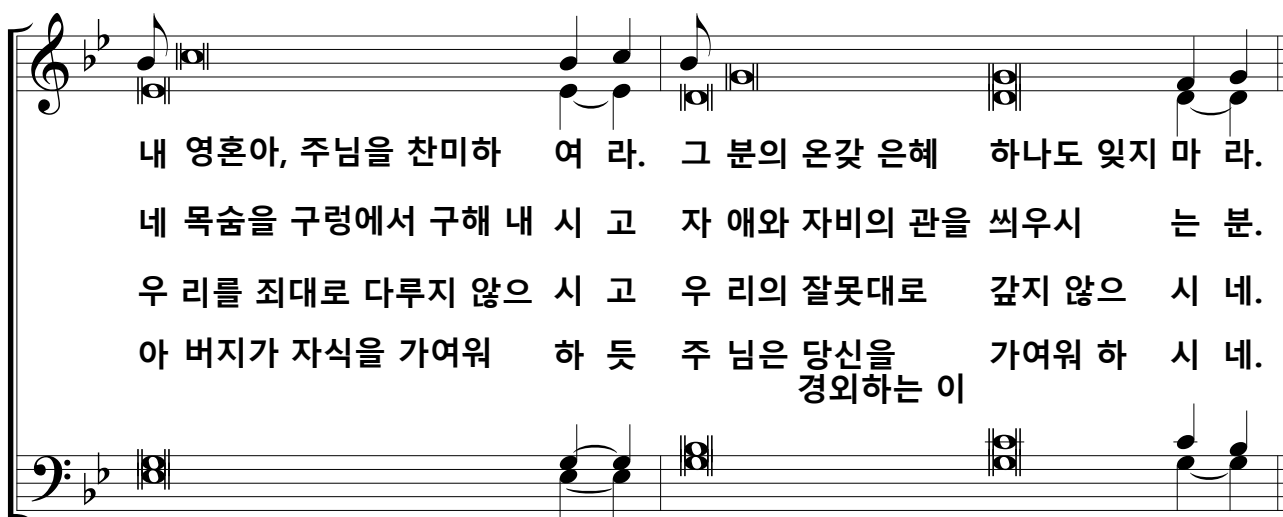
시편 103(102), 1-2. 3-4. 8과 10. 12-13



(후렴) 주 님 은 자 비 록 고      너 - 그 러 우 시 네.



1. 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 여 라. 내 안의      거룩하신  
모든 것도      그 이름 찬미하 여 라.  
2.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 시 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      는 분.  
3. 주 님은 자비롭고      너그러우시 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      시 네.  
4. 해 뜨는 데서      먼 것 처 럼,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      시 네.  
해 지는 데가



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 여 라. 그 분의 온갖 은혜      하나도 잊지 마 라.  
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 시 고 자 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      는 분.  
우 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 시 고 우 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 시 네.  
아 버지가 자식을 가여워 하 듯 주 님은 당신을 가여워 하 시 네.  
경외하는 이

## 연중 제 7 주일 알렐루야 [다해]

알 렐 루 야 알 렐 루 야 알 렐 루 야

주님이 말씀하신다. 내가 서로 사랑하여라. 내가 너희를  
 너희에게 새 계명 을 - 준 다.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 - 여 라.